

社說

한미FTA 체결과 지역농축산업

요즘 각종 매체는 한미FTA 체결과정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분야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내용을 이다.

한미FTA(free trade agreement)는 한국과 미국간 수출과 수입 등 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 융통성있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말한다.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농축산업이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포천지역은 농업분야의 피해도 심하겠지만 축산업 피해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세이프가드(Safeguard)를 설정하고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량에 균형을 맞추는 특별관세(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동안 장기기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농축산업의 대외 경쟁력 하락이 문제다. 축산업의 경우 국내 가격은 외국산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축산업의 규모나 사료 원료 수입 등이 가장 원인이겠지만,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본다. 왜냐하면 축산물 수입 개방은 이미 10여년전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소 2마리만 사육해도 축산농가로 분류해 대규모 축산농가와 같이 취급했을 뿐 아니라 각종 지원책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왔다.

결과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할 정부정책이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축산물과 축산업계에서는 이제라도 대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급육 브랜드화 사업이다.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연구와 사육방법 개선 및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축산물의 브랜드화 사업은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수입 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한다면 그야말로 축산농가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봉수 · 김규로 · 김홍서 · 이종국 참전용사

포천시 6·25참전유공자 화랑무공훈장 수여식

포천시는 4월2일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한 최기종 6·25참전 유공자회장 및 관내 보훈단체장, 시민, 직원 등 200여명이



고조흥 의원, 한·중정당지도자 세미나 참석

한중친선협회 주관 양국 교류 협력 증진

고조흥 국회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2007년 한중친선협회 주관으로 양국정당지도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초청 초당파국회의원 중국방문단 2007년 3월 26일~30일 까지 5일간 참여했다.

이상득 국회의원의장 단장으로 한 이번 방중 대표단은 2007년 한·중 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정당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안중근 의사 서거 97주년을 기념하여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안수감되고 사형당한 휘산 감옥에도 방문, 안중근 의사의 넋을 기렸다. 이번 방문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에 중국의 참여와 협조를 약속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다.

고 의원은 28일 다오위타이(釣魚臺) 국민관에서 '한·중 수교 15주년 및 한·중 교류의 해' 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상호 이해 증진과 공동발전 촉진'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은 한국 측에서 이세기 한중친선협회 회장이, 중국 측에서 류홍차이(劉洪才)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이 사회를 맡았다.

주제발표는 한국 측에서 안택수, 최규성 의원과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박승준 조선일보 베이징 지국장, 중국 측에서 러우즈 하오(樓志豪)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부부장과 리젠거(李健閣)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부장이 각각 맡았다.

양국의 정성급 정치 인사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고조흥 의원은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경제 협조관계를 비롯하여 한·중 FTA 체결 가능성 등에 이르는 폭 넓은 경제정책 논의와 교류 증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의 바람직한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참석한 가운데 월례초회를 갖고, 육군본부로부터 전달받은 화랑무공훈장을 6·25참전 유공자에게 수여했다.

이날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대상자는 영북면 양봉수, 가신면 김규로, 영북면 김홍서, 내촌면 이종국 등 총 4명으로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6·25참전용사 중 훈장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장은 훈장을 받은 6·25참전용사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참석자 모두가 나라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했다.

또한 포천시는 육군본부와 연계하여 6.25참전용사 훈장 찾기주기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고조흥 의원은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경제 협조관계를 비롯하여 한·중 FTA 체결 가능성 등에 이르는 폭 넓은 경제정책 논의와 교류 증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의 바람직한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FTA 협상에 따른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양기원 포천농업경영연구소장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대부분 소규모 축산농가이며 영세하고 부업농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 부업규모의 축산업을 영위하다 보니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사양관리의 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급육의 생산과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축산농가들이 시장가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격이 하락하면 흉수 출하로 가격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축산농가 스스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와 기술에서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FTA협상 타결로 조만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우리의 먹거리를 거래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축산업을 지키려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축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축산물 생산비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전업화 규모의 축산업이 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축산농가가 전업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전업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시설, 장비의 자동화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바탕으로 사육기술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역사업, 분뇨처리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축산물 유통체계를 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고 등급에 따라 차등가격제를 시행해 구매와 판매를 통하여 고급육 생산의 동기작과 함께 원산지표시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수입산과 국산을 혼동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가축개량에 중점을 두어 우수한 혈통의 종모우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수정란식 등 신기술을 보급하여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축산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로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우리 축산농민들의 희망을 갖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림습지조사매뉴얼 발간



산림청은 국립수목원(원장 박종서)에서 개발한 한국형 식물자원조사 방법인 K1방법을 응용한 GIS를 이용한 습지위치 검색기법'을 이용하여 습지조사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GIS를 이용한 습지위치 자동검색기법'을 응용, 산림습지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산림습지조사자들에게 표준화된 조사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산림습지조사매뉴얼'을 발간했다. 국립수목원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산림습지조사매뉴얼은 산림습지의 정의, 조사사업의 의미, 조사방법, 산림습지유형분류체계, 산림습지 출현 식물도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습지조사매뉴얼은 산림습지 조사에 대한 표준화를 달성했고 이 기술은 특허출원 중에 있다.

국토의 64%가 산지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대안산의 용출, 정족산 무지개폭,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의 습지습지가 산림내에 분포하고 있어 산림내 습지의 보존은 곧 우리나라 습지의 대부분을 보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산림청에서 2006년부터 08년까지 3년간에 걸쳐 산림내 습지를 찾아내고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의 식물자원조사 방법인 K1방법을 응용한 GIS를 이용한 습지위치 검색기법'을 이용하여 산림내에서 새로운 습지를 찾아내고 있다. 이 기술로 '06년도에 산림청 산림환경보호본부와 5개 지방산림청에서 국립유림 423천ha를 조사하여 새로운 산림습지 93개소를 찾아내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국립수목원은 2006년 산림습지매뉴얼을 제작 배포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전년도 조사경험을 토대로 보다 정밀한 습지조사 지침인 '산림습지조사매뉴얼'을 제작하여 습지 조사자의 현지 조사 지침서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습지식물 관련 전문가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World-OKTA 세계대표자 대회 포천 개최

해외 51개국 94개 도시 한인무역상 등 참석

제9차 세계해의 한인 무역협회(World-OKTA) 세계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오는 20일부터 24일 까지 포천시 반월아트홀과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다.

'World-OKTA의 성장과 미래전략이라는 주제와 '경기도 중소기업 화성화와 OKTA의 역할'이라는 의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해외 51개국 94개 도시 한인무역상 300여명과 포천시의 경기도 중소기업체 150개사 등이 참석한다. 기조자치단체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사)세계해의한인무역협회와 경기도, 포천시가 공동주최하고 산

업자위원회와 KOTRA, 중소기업중앙회, 포천상공회의소 등이 후원한다.

제9차 World-OKTA 세계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 일정은 1일차(20일) 확대회장단(고문, 상임집행위원, 지회장 등)회의 및 만찬에 이어 2일차(21일) 안보관광 및 이동주조 견학, 초청강연, 필리핀지회 성공사례발표, 포천시의 환영만찬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 3일차(22일)에는 황승관 박사 초청 강연에 이어 World-OKTA 이사회, 시드니 해외한인족 경제공동체 대회, 이명박과 김혁규 한인-대만 고문이 참석하는 KOTRA주최 만찬회가

개최된다. 4일차(23일)는 반월아트홀에서 관내기업체 대표를 초청해 남미와 유럽 수출환경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투자환경설명회,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경기도 주최 MOU 및 계약 체결식을 갖고 5일차(24일)에는 분과별 국제위원회 회의와 경제포럼(한국외 무역 증진과 국외 선양을 위해 1981년 4월 2일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 한인 무역상 조직 결성되었으며, 국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기하고 산업정보 및 기타 회원 상호간에 이익증진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상부'(현,산업자원부) 지도아래 KOTRA 지원으로 설립된 국제적 해외교류로 경제·무역단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URL.

Large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 featuring the headline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은 전국 最高의 지역신문' and a list of subscription rates.